

## 무분별 가지치기... 몸통만 남은 가로수 흉물 전락

### #일주\_이슈

‘가로수 수난시대’... 관리 부실  
병해충 무방비 포자·벌레 서식  
“도시미관 해쳐 보기 흉해” 향의  
“가로수 별 관리법 등 기준 필요”

도시 미관 향상과 오염물질 저감·열섬 효과 완화 등을 위해 식재된 가로수들이 겨울철만 되면 몸살을 앓고 있다. 낙엽이 떨어진 후부터 새싹이 트기 전까지 진행되는 ‘가지치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나무들은 수종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가지치기법으로 몸통만 덩그러니 남아 마치 전봇대 같은 모습이 된다. 전문성이 결여된 채 무차별적으로 베어지고 훼손되는 가로수에 시민들은 ‘흉물스런 가로수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운전 방해 ‘씩둑’·낙엽 많아 ‘툭질’  
“양상하게 남은 나무들을 보면 정말 안쓰럽죠. 이 가로수들은 단순히 나뭇가지가 도로 위를 넘어왔다는 이유로 저렇게 다 잘렸어요.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최근 찾은 광주 서구 광암교 인근의 도로에는 ‘반쪽만 남은 가로수’들이 즐비했다. 갓길에 심어진 수백 그루의 뽕나무들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절반 이상이 잘렸다. 절단 부위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도포제도 발라지지 않아, 포자 등 병·해충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흉측하고 기괴한 모습에 지나다니는 시



광주시내 도심 가로수가 전문성이 결여된 가지치기로 수난을 겪고 있다. 12일 광주 서구 광천변 광암교에서 동천교 사이 도로 쪽으로 뺀 뽕나무 가지가 무분별하게 잘렸다. 김양배 기자

민들은 ‘가로수에게 미안해진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광천동 주민 조시훈(38)씨는 “지인들과 함께 광천변을 산책할 때면 항상 이 나무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때마다 ‘나무가 왜 이런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가지가 다 잘린 거였더라”며 “이렇게 절반만 가지치기 된 나무는 또 처음 본다. 가로수를 심어 도시 미관이 좋아져야 하는데, 괜히 역효과만 났다”고 아쉬워 했다.

비슷한 기간 찾은 북구 운암동 인근의 가로수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가지와 잎을 잃은 채 몸통만 남은 가로수들이 즐비했고, 흡사 ‘뿔뿔·전봇대’와 같은 모습에 성장마저 걱정됐다. 이곳 가로수들은 잎이 하수구를 막거나 전선에 엉킬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가지치기를 당했다.

시민 최복남(70)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인근 아파트나 학교 쪽 가로수들을 보면 죄다 이런 식이다. 옷을 싹 다 벗겨놓은 모습에 괜스레 눈살이 찌푸러지기도 한다”며 “예전에는 나무 그늘 아래서 동네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제는 다 옛말이 됐다. ‘나 편하자’고 나무를 다 잘라버리지 않나. 나무와 사람이 공존하는 더 좋은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규정·법규·지침 미비

무분별한 가로수 가지치기는 규정·법규·지침의 미비함에서 비롯된다. 가로수 관리 규정은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매뉴얼’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가지치기 방식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칠 뿐, 가지를 얼마나 잘라야 하는지 등과 같은 내용은 없다. 가지치기는 가지를 잘라내는 양에 따라 약전정과 강전정으로 나뉘는데, 이를 구분짓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대부분 비용·시간이 절감되는 ‘강전정’을 고수한다. 강전정은 새순이 나기 전인 1~3월 가지 대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 강전정이 문제가 되는 건, 가로수에 독이 되기 때문이다.

김중태 내일야행광주나무병원장은 “강전정으로 잘린 굵은 가지 절단면은 병해충에 무방비로 노출돼 부패가 일어난다. 부패로 속이 썩은 가로수들은 바람

이 세게 불거나 비가 오면 도로나 인근 건물 물을 덮쳐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며 “광주·전남 대부분의 가로수들은 확립된 강전정을 당하고 있다. 가로수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수종별 가지치기 방식을 세분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관리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진우 ‘가로수애끼는사람들’ 대표는 “국제수목관리학회에는 가지치기 시 나뭇잎의 25% 이상을 제거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나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이유에서다”며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걸 인지하고 가르칠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올바른 가지치기’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가지치기 안내서 제작, 나무의사 등 전문 교육·인증 제도 운영, 강전정·약전정 품셈 기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2·3면 정성현 기자

### 광주 휴일 단수 큰 혼란 덕남정수장 메인밸브 고장

정수장 밸브고장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광주 일부지역이 수 시간동안 단수되는 등 혼란을 빚었다. 최악의 가뭄으로 물부족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물 수만톤이 유실되기도 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께 광주 남구 덕남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배수지로 보내는 상수도 메인 밸브가 열리지 않는 고장이 발생했다. 상수도 밸브 고장으로 정수지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물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주변 도로로 넘쳐흘러 홍수현상을 방불케 했다.

시는 시설 노후화를 밸브고장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덕남정수장은 1994년 준공됐다. 시설이 30년 가까이 된 탓에 전자동으로 밸브를 여닫는 통신망에 이상이 생겼고, 메인 밸브가 닫히면서 물이 넘쳤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시는 단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서남·광산구 시민들에게 단수를 예고했다. 저수조를 갖춘 아파트에서는 단수로 인한 피해가 적었으나 주택가를 비롯해 상업 시설에서는 불편이 잇따랐다. 특히 광주시가 단수 1시간 30분 전인 11시42분께에서야 급하게 단수 예고문자를 보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서구 치평동 주민 공모(56) 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이후 광주시 예고 문자를 보고서야 단수 소식을 접했다”며 “물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후 1시 정각이 되니 수도물이 나오지 않았다. 주중 간 쌓인 빨래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당장 긴급복구가 완료되더라도 가정으로 깨끗한 수도를 공급받지 못한 시간이 소요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단수 지역에 비상용 병물인 ‘빛어울수’를 공급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박상지·정성현 기자

**광주사람들 (499/1000)**

**정재성**  
지한초등학교 교사

▶관련기사 17면

## 김홍탁의 Branding Class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3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3년 3월20일 개강-5월29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전형 방법】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무계산서 요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강료 : 220만원(부가세 포함)  
입금계좌 : 농협 / 605-01-226718 / (주)전남일보
- 【접수 마감】 2023년 3월 중순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 【모집 대상】 브랜딩에 관한 전반적 지식 습득과 브랜딩의 실천 경험 원하시는 분  
나만의 브랜드 컨셉으로 시장에서 'Power Brand'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대중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  
기업/지방자치단체·홍보관련 부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
- 【강사 이력】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_\_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전(前)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빌게이츠재단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위원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